



글 천유나

대구한의대 한의예과 2학년
cyuna2003@naver.com

지역의 비평준화 일반고를 졸업했다. 가르치는 일과 교육 봉사를 좋아해 교대를 목표로 공부했지만 한의학에 매력을 느껴 반수 끝에 한의대생이 됐다. 많은 학생이 나의 이야기를 읽고 용기를 충전해 마음껏 도전하길 바란다.

첫 번째 주제_ 좌충우돌 진로 찾기

아파서 찾아간 한의원에서 새로운 꿈을 찾다

교대 진학을 위해 선택한 고등학교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대학 입시를 고민하는 친구가 많아졌다. 대학은커녕 어느 고등학교에 진학할지도 정하지 않았던 나는 그때부터 진로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내가 진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

불현듯 초등학교 방과 후에 교실에서 혼자 음악을 들으며 일하시던 선생님이 생각났다. 그 모습이 부러웠던 나는 다른 직업은 생각해보지도 않고 무작정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법과 교대에 가는 방법을 검색하며 안정적이고 방향이 있는 교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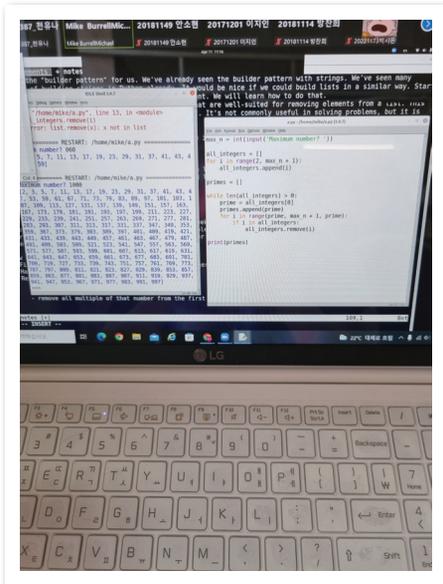
나는 집에서 멀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교대에 많이 진학한다는 입시 팸플릿에 마음이 이끌려 고등학교를 선택했다. 학교로 가는 버스도 한 대뿐이라 어머니가 차를 태워주지 않으면 새벽 6시 30분

에 일어나 짜증을 내면서 겨우 아버지의 차를 타고 등교했다.

젯바퀴처럼 늦은 시간까지 야간자습을 하고 학원을 다니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일상을 반복하다 보니 몸에 과부하가 걸렸다. 위염, 위경련, 소화 불량, 편두통, 빈혈 등으로 쉬는 시간마다 보건실을 찾는 일이 잦아졌다.

침을 맞고 누워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기 때문일까? 소화가 잘 안 되고 편두통이 심해져 몇 번이나 야간자습을 빠지고 한의원에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한의학에 관심이 생겼다.

결국 수능 며칠 전, 한의사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원서 접수는 이미 끝났기에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섰다. 한의대 진학을 위해 재수를 할지, 원래 계획한 대로 교대에 가서 지긋지긋한 입시에서 벗어날지.



유니스트에서 들었던 코딩 강의.

Table 3. The moment of inertia of a rod
Rod $\Rightarrow M = 0.276 \text{ kg}, L = 0.87 \text{ m}$

Free fall mass, m (kg)	Angular acceleration, α (rad/s ²)	The moment of inertia I_{exp} (kg·m ²)	The moment of inertia I_{theo} (kg·m ²)
0.02	2.294	2.083	2.083
0.04	4.587	4.167	4.167
0.06	6.881	6.250	6.250

Figure 6. Angular acceleration-time graph (Point mass)

Table 4. The moment of inertia of point mass
Point mass $\Rightarrow M = 0.276 \text{ kg}, R_0 = 0.2 \text{ m}$

Free fall mass, m (kg)	Angular acceleration, α (rad/s ²)	Ave	The moment of inertia I_{exp} (kg·m ²)	The moment of inertia I_{theo} (kg·m ²)
0.02	1.071	1.056	8.0 × 10 ⁻³	8.0 × 10 ⁻³
0.04	2.142	2.097	1.6 × 10 ⁻²	1.6 × 10 ⁻²
0.06	3.213	3.145	2.4 × 10 ⁻²	2.4 × 10 ⁻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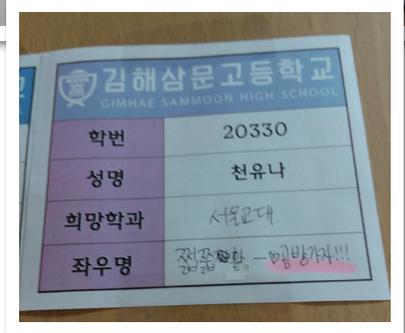
*m': mass of point mass, r': radius of point mass
*Rod $\Rightarrow M = 0.276 \text{ kg}, L = 0.87 \text{ m}$

Table 5. The moment of inertia of the point mass with various radius
Point mass $\Rightarrow m' = 0.050 \text{ kg}$ (fixed).

Free fall mass, m (kg)	r' = 0.201 (m)	Angular acceleration, α (rad/s ²)	Moment of Inertia, I_1 (kg·m ²)	r' = 0.245 (m)	Angular acceleration, α (rad/s ²)	Moment of Inertia, I_2 (kg·m ²)	r' = 0.327 (m)	Angular acceleration, α (rad/s ²)	Moment of Inertia, I_3 (kg·m ²)
0.02	1.066	8.081 × 10 ⁻²	0.042	0.094	1.446	0.188 × 10 ⁻²	0.058	0.058	0.188 × 10 ⁻²
0.04	2.058	1.616 × 10 ⁻¹	1.670	0.189	2.892	3.76 × 10 ⁻²	0.116	0.116	3.76 × 10 ⁻²
0.06	3.049	2.424 × 10 ⁻¹	2.504	0.283	4.266	4.08 × 10 ⁻²	0.174	0.174	4.08 × 10 ⁻²

유니스트에서 작성한 물리 실험 리포트.

난 고등학교 때 가장 먼저
등교하고 가장 마지막에
하교하는 학생이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책상에 붙였던 좌우명과
목표 대학.

힘에 부쳤던 울산과학기술원 수업

1지망이었던 서울고대에 최초 합격했고 아버지의 권유로 넣은 울산과학기술원(유니스트)에서도 최초 합격 통보를 받았다. 안정적인 삶이 보장된 교대에 가면 반수를 하는 모험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즉흥적으로 유니스트에 등록했다.

교대 진학만 생각했기에 유니스트 생활은 기대 이상으로 재미있었다. 영어로 진행되는 코딩 강의, 다양한 화학과 연구, 최신식 설비를 갖춘 실험에 다 기숙사 룸메이트와 함께 과제를 준비하고 매주 시험을 치르느라 일주일이 하루같이 느껴졌다.

1학년 과목은 대부분 이과 기초 수업이었는데 과학고를 졸업한 동기는 고3 때 이미 공부한 과목이라 쉽게 따라갔다. 나도 수업을 이해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과는 그에 미치지 못했다.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 때문에 좌절을 맛보기도 했

다. 결국 1학기 기말시험을 치르고 반수를 결심했다. 목표는 한의대였다.

아침 7시에 일어나 대충 밥을 챙겨 먹고 학원에 가서 밤 10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돌아오는 생활이 다시 시작됐다. 아무리 공부해도 부족한 점만 보였고 시간은 늘 부족했다. 소화 불량이나 위경련이 어김없이 찾아왔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돌고 돌아 한의대에 입학했지만 그동안의 경험은 헛되지 않았다. 이런 시간이 없었다면 여전히 좁은 시각으로 틀에 갇힌 선택만 했을 것이다.

새로운 길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수많은 길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내가 갈 길을 선택할지 마음껏 고민할 수 있었다. 그러니 조금 돌아가도 괜찮다. 모든 시간이 성장의 밑거름이 될 테니까. @